

#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및 다문화인식의 인과관계

최동원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among Cultural Tendency, Social Maturity,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Dongwon Choi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및 다문화인식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초기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I지역과 C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395명이었 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하였고, SPSS 22.0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전반적 적합지수에 잘 부합되는 모형으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문화성향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직접적 효과를 보였고, 집단적 문화성향은 완전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의해 영향력이 있음이 규명되었으며, 59.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relationships among cultural tendency, social maturity,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395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 Individualism, social maturity and community spirit showed a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ommunity spirit and Social maturity work as complet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59.2% of acts towards multicultural 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rograms enhancing proper personalities like community spirit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ultural Tendency, Social Maturity, Community Spirit, Multicultural Perception,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일부 난민 등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간호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한국사회는 서구 백인보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건강관리 에 대한 관심 또한 높지 않다[2]. 실제로 다문화대상자의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cheon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Dongwon Choi(dionia@iccu.ac.kr)

Received September 20,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3,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의사소통, 의료비, 접근성, 이용질차 등의 장벽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과 차별 및 그로 인한 의료기관방문 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성인뿐 아니라 모성과 영유아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은 다문화 대상자에게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전인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실무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접할 수 있는 예비 보건의료인으로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대상자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람과 문화 간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미래에 접촉하게 될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3].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4] 다문화 간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태어나면서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3].

문화성향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 인식, 신념, 태도 및 행동의 양상으로, 보통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틀은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려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개인주의 문화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경쟁적인 개인주의로 성장하기 쉽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성을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유지에 신경 쓰고, 사회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5].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으나 최근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있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특성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 간호대학생 자신도 태어나고 성장한 본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영향에 의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잠재적 문화성향은 실제 다문화 교육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인식과 문화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

요가 있다[3].

사회적 성숙이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성향으로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의 태도, 가치 행동 등을 받아들이고 학습하여 타인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화를 의미한다[6]. 이는 자아를 형성시키면서 남을 존중하고, 욕구를 길들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고 특정 생활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이다[7].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다문화 대상자 간호를 포함한 특수한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다문화인식 함양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숙정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8].

공동체의식은 공동의 문화생활을 같이해 오는 과정에서 겪는 일체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의식으로 우호적 인간관계를 맺어 주는 심리적 결속을 말한다[9]. 간호사는 ‘돌봄’을 제공할 때 대상자를 타자로서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촉진시킴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와 만족을 높일 수 있다[10].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틀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치 부여에 영향을 받는다[11]. 이는 동일한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다문화 사회 안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반영한다[10]. 그러나 실제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과중한 학업 부담,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적 환경에 놓여 동료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입학 초부터 긴장감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8]. 결국, 사회적 성숙과 상호작용을 통해 갖춰야 하는 공동체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문화인식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급변하는 다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직접 간호해야 하는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이나 역량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반면 다문화인식에 인성적 바탕이 되는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및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사회성숙도 및 다문화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학생의 바람직한 다문화인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숙도, 문화성향,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와 직접, 간접 및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1.3 가설적 모형 구축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구조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Fig. 1 참조).

첫째, 문화성향은 다문화 환경 감수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일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문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성과의 관계연구에서 집단-개인 중 어떤 문화성향인지에 따라 다문화 환경 감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12]. 그러나 문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성에서는 문화성향 중 개인과 집단, 수평과 수직에 관한 문화성향의 하위요인들도 서로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대학생 시기는 청년후기로서 현실사회에 대한 자기의 역할, 입장 등 자각이 생겨,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성인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규범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자율성과 도덕성 형성과정을 거쳐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한다[13]. 이러한 성장이 사회친화력으로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적 존재로 국가적, 민족적 타인인 다문화 사람과 쉽게 어울리고 화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성숙도가 낮을수록 사회에서 많은 혼란과 불안감,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과 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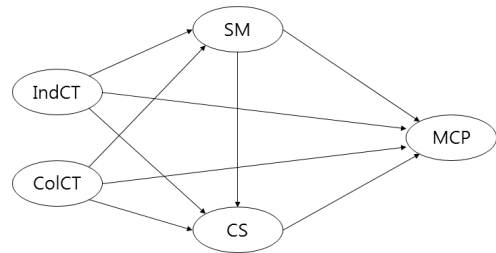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model

IndCT: 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셋째, 공동체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음이 보고되었고,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14].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미래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을 쉽게 간과하면 안된다[15].

넷째, 자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적 구성원들의 문화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16]. 사회문화적 차원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원들이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연대감으로서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볼 때, 선행연구는 문화성향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6].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외생변수인 개인적, 집단적 문화성향은 내생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성향에 영향을 받은 두 개의 내생변수가 최후에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과 다문화인식의 구체적인 경로와 영향력을 규명하는 구조모형검증 연구이다.

Table 1. Characters of subjects. (N=395)

characteristics		n(%)
Gender	Female	345(87.3)
	Male	50(12.7)
Age(yr)	<20	125(31.6)
	20~29	242(61.3)
	≥30	28(7.1)
Religion	Yes	112(50.7)
	No	108(31.6)
Grade	1st	125(31.6)
	2nd	128(32.4)
	3rd	94(23.8)
	4th	48(12.2)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Aptitude & interest	159(40.3)
	Inducement	72(18.2)
	Employment	121(30.6)
	Along to grade	11(2.8)
	Service for society	22(5.6)
	Others	10(2.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62(41.0)
	Moderate	206(52.2)
	Unsatisfied	27(6.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43(61.5)
	Commonness	147(37.2)
	Not good	4(1.0)
Meaning on nursing	Very meaningful	336(85.1)
	Moderate	49(12.4)
	Meaningless	10(2.5)
Multicultural contacts in the past year	None	169(42.8)
	sometimes	203(51.4)
	frequently	22(5.6)
idea of needs for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Yes	364(92.2)
	No	31(7.9)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Yes	198(50.1)
	No	197(49.9)
language that communicate	Yes	216(54.7)
	No	177(45.3)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4월에서 6월이었으며 I 시와 C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고, 설문 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상자 수는 구조모형을 위한 적절한 표본수는 200명 이상이라는 근거에 기초하였다[17].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부적절한 설문지 5개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9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문화성향

문화성향은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18]이 제작하여 Kim[19]이 우리나라 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를 묻는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각 16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8$ 이었고, 개인주의 성향은 .767이고, 집단주의 성향은 .765이었다.

### 2.3.2 사회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Suh & Whang[20]이 개발한 심리사회성숙도를 측정하는 심리검사지(Social Maturity Test)를 재편성하여 Park & Kim[21]이 사용한 “사회적 성숙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에서 자신감 8문항, 사교성 10문항, 대인관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 Kim[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4이었다.

### 2.3.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Kim[1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고, Chung[22]의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된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 동일시와 상호영향의식, 자율성과 공동의식, 권위성과 배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각 문항 당 4문항씩 24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 2.3.4 다문화인식

Park[23]이 우리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다문화인식 설문지를 Lim[24]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인식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적 영역의 문항은 인종 차별, 사회적 장벽,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신념, 한국의 다문화화정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4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와 AMOS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요인들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다문화인식과 관련 요인에 대한 대상자 특성의 차이와 상관관계는 t-test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절대부합지수로  $\chi^2$ ,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평균잔차제곱근(RMR),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기초적합지수(GFI) 및 조정적합지수(AGFI)를 구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및 다문화인식의 측정변수의 수가 각각 32, 25, 24, 15, 총 96개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이 어렵고 복잡하여 확인요인분석 후 하위요인을 항목합산을 통해 16개의 측정변수로 설정한 다음 모델을 검증하였다.

Table 2. Degree of study variables. (N=395)

Variables	Mean	SD	Range (Min-Max)
cultural tendency	3.83	0.61	1.05-5.00
individualism	3.30	0.40	2.19-4.38
collectivism	3.62	0.43	2.00-4.75
Social maturity	2.89	0.62	1.00-5.00
confidence	3.35	0.59	1.63-4.75
sociality	2.47	0.62	1.00-4.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0	0.63	1.14-4.86
community spirit	3.32	0.63	1.00-5.00
intimacy & belonging	3.57	0.58	1.50-5.00
harmony & solidarity	3.60	0.49	2.00-5.00
spontaneity & expression	3.49	0.48	2.00-5.00
equation & sharing	3.73	0.57	2.00-5.00
autonomy & public awareness	3.53	0.54	1.00-5.00
authority & exclusiveness	3.55	0.52	1.25-5.00
multicultural perception	4.01	0.51	2.50-5.00
Cognitive	4.06	0.47	2.00-5.00
conscious	3.78	0.58	1.00-6.40
behavioral	3.70	0.54	1.60-5.00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세-29세가 242명(61.3%)이었고, 87.3%가 여학생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50.7%이었고, 1학년이 31.6%, 3학년이 32.4%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적성과 흥미 때문이 40.3%로 가장 높았고 취업(30.6%), 주변 권유(18.2%) 순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41.0%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1.5%가 대인관계가 좋다고 답하였다(Table 1 참고).

### 3.2 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 3.2.1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공동체의식, 다문화인식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83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3.30, 집단주의성향이 3.62로 나타났다. 사회성숙도는 2.89점이었고, 공동체의식은 3.32로 영역별로 '동일시와 공과공유'가 3.73으로 가장 높았고,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 항목이 3.49로 가장 낮았다. 다문화인식은 4.01점이고 인지적 영역이 4.06이고 행동적 영역이 3.70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 3.2.2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정도는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집단주의적 문화성향 ( $r=.403, p<.01$ ), 개인주의적 문화성향( $r=.273, p<.001$ ), 공동체의식( $r=.111,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공선성의 검증결과 모든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70보다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는 0.1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Table 3.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N=395)

Variables	IndCT	ColCT	SM	CS	MCP
IndCT	1				
ColCT	.271**	1			
SM	.023	.141**	1		
CS	.025	.435**	.152**	1	
MCP	.273**	.403**	.106*	.111*	1
AVE	0.85		0.53	0.83	0.80

\* $p < 0.05$ , \*\* $p < 0.01$ , \*\*\* $p < 0.001$   
 IndCT: 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Table 4. Goodness for fit test

Goodness	X2 (p)	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279.1 (.000)	80	.022	.912	.868	.942	.958

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참고).

### 3.3 구조모형 분석

#### 3.3.1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사용될 구조방정식모형에 요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델의 분석,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델분석 결과, 사회적 성숙의 하위요인 중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자신감 영역과 개인적 문화성향의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수용하였다.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중 최소값(0.53)이 0.5이상이었으며, 절대값이 가장 큰 사회적 성숙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계수 -0.676의 제곱 값인 0.457 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타당성도 확보하였다(Table 4 참고)..

본 연구에서 적합도를 검증하는 지표인  $\chi^2$  검증결과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구조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chi^2=279.1, p=.000$ ),  $\chi^2$ 값만으로 볼 때는 모형과 자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전체 395명의 큰 표본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chi^2$ 값은 표집 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chi^2$  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MSEA, RMR, NFI, CFI, GFI, AGFI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절대부합지수인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가 0.05에서 0.08 사이의 기준에서 0.075로 적절한 적합도(reasonable fit)를 보였다[25]. 표본부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은 대략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에서 NFI가 0.942, CFI 0.912로 나타났다. 기초적합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가 0.912, 조정적합지수인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가 0.868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가적인 모형의 수정을 시행하지 않았다(Table 4 참고).

#### 3.3.2 가설모형의 검증

가설적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Fig.1과 같다. 개인적 문화성향은 사회적 성숙( $\beta=-0.659$ )과 공동체의식( $\beta=-0.631$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문화인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69$ ). 집단적 문화성향은 다문화인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성숙( $z=2.31$ )은 공동체의식( $z=2.07$ )의 완전매개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숙도는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0.356$ )와 함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021$  수준에서 간접효과( $\beta=0.27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0.305$ ), 사회적 성숙과 다문화인식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z=2.36$ ). 다문화인식에 대한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53.8%였다(Table 5 참고).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SM	IndCT	-.659**		-.659**	.209
	ColCT	.576**		.576**	
CS	IndCT	-.631**	-.338	-.969**	.592
	ColCT	.547**	.295	.843**	
	SM	.513***		.513***	
MCP	IndCT	.369*	-.477	-.108*	.538
	ColCT	-.288	.415	.127	
	SM	.275*	.157	.431*	
	CS	.305**		.305**	

\*p <0.05, \*\*p <0.01, \*\*\*p <0.001

IndCT: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개인적, 집단적 문화성향, 사회적 성숙 및 공동체의식을 문헌고찰에 의해 선정했으며, 모두 다문화인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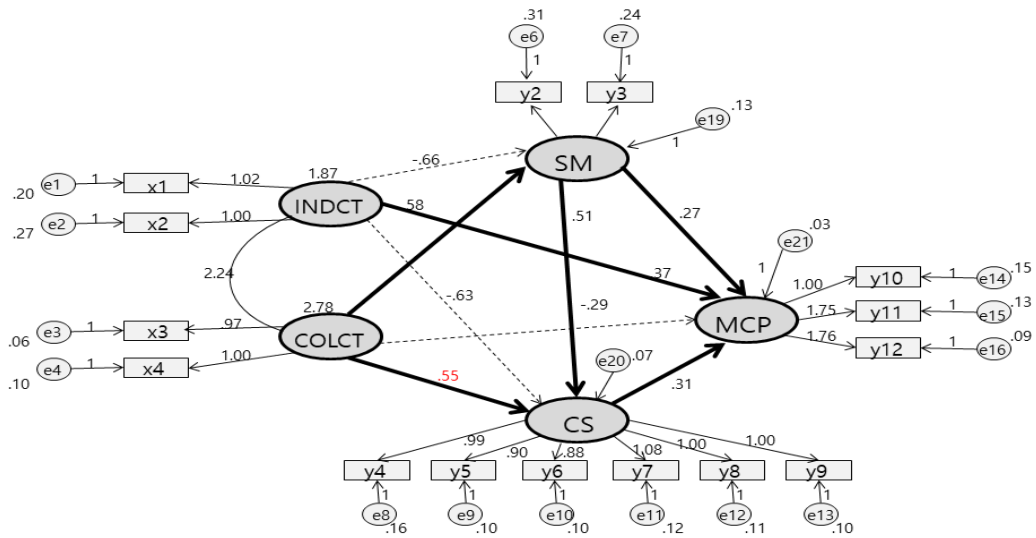


Fig. 2. Hypothetical model

INDCT: individualism cultural tendency    COLCT: collectivism cultural tendency    SM: Social maturity  
 CS: Community spirit    MCP: multicultural perception

x1: vertical individualism    x2: horizontal individualism    x3: vertical collectivism    x4: horizontal collectivism  
 y2: confidence    y3: sociality    y4: intimacy & belonging    y5: intimacy & belonging  
 y6: spontaneity & expression    y7: equanimity & sharing    y8: autonomy & public awareness  
 y9: authority & exclusiveness    y10: Cognitive    y11: conscious    y12: behavioral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인식은 독립변수인 개인적, 집단적 문화성향이 직접적 또는, 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과 선형적 관련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문화는 개인의 정서, 인지, 동기,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문화권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치관,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26]. 따라서 간호대학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문화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의 평균적인 반응을 비교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성향은 3.83이었다. Yoo & Lee[3]의 3.44와 무용전공 대학생의 문화성향에 대해 연구한 Kim[16]의 3.48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문화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의 평균은 3.30, 집단주의적 성향은 3.62로 집단주의의 성향이 개인주의의 성향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5점 만점 중 각각 3.23, 3.62로 나타난 Yoo & Lee[3]과 유사한 결과로 개인주의의 성향은 낮게, 집단주의의 성향은 높게 나타나 간호학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사회, 타인 등의 관계 중

심적 인간관을 중시하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사한 인간관을 추구하는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 Mo[1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타인에게 단결심, 공손함, 배려성, 소속감 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내집단과 동일시된 자기관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나 소속을 중시하게 된다.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일하기보다 팀원으로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일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우세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숙도 총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9 점으로 중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Son[27]의 3.20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부 영역 중 사회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성만을 측정한 Kwon, & Yeun[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낮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숙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식 정도는 평균 3.32로 하위영역에서 동일시

와 공과공유가 가장 높았고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이 가장 낮았으나 각 하위영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국내·외 모두 간호대학생은 물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나 무용전공 대학생 대상의 Kim[16]의 연구에서 측정된 3.42보다 낮았다. 이는 동료들 간의 일치감, 소속감, 협력적 상호의존성의 매개로 하여 각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무용전공 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의무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여겨지는 결과이다.

사회적 성숙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이때 형성된 인간관계는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성숙하게 변화시키며 발달한다[12]. 그러나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는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기회가 간호대학생에게 많지 않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학문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상대평가,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도한 학업의 부담으로 전공지식 습득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하고[8], 결국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갖춰야 할 상호작용 능력, 사회에 기여 하는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사회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와 품성 및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건강관리팀원으로 임상현장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참여할 간호사로서 주된 역할을 해야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문화인식 정도는 4.01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복지 전공 대상으로 한 Suh[29]의 연구에서 3.33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Choi[29]의 3.63점과 다른 도구로 측정된 Lee[30]의 3.05점 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50%가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92.2%가 다문화 간호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대상자 특성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Suh[28]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비전공자에 비해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다문화인식의 낮은 점수를 유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를 인지하고 의식하며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와 같은 다문화에 대한 간호교육계에서의 관심이 지속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인식에 대한 변인과 관련하여 구

축한 모형은 설명력이 53.8%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잘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인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성향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을 거쳐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잘 설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성향 중 개인적 성향은 다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이는 선행연구[3]에서 문화성향과 그 하위요인인 수평적 개인주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다문화인식을 예측하는 중심 속성으로서 집단주의적 성향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집단주의 사회로 여겨져 왔지만 근래 전통의 집단주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11]. 간호대학생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의미는 다르나 도덕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표출되기도 하여 기존의 집단주의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임상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다문화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일련의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라온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생각과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자기를 집단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없으며,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가진다. 이러한 성향은 기존 세대들의 폐쇄적인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다문화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인과관계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성향과 다문화 환경 감수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12]에서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는데, 공동체의식의 본질을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안정감이라고 볼 때 개인적·집단적 문화성향에 상관없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Han[32]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을 수도 있지만, 개인-집단주의적 성향이 모두 높거나 낮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유일한 차원의 양극단으로만이 아니라 두 개의 각기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측면은 구성된 간 상호연계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된다. 수직적 성향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완성과 조화와 안정을 통한 관계 속에서 존재 의의를 찾으며 수평적인 성향은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이에 맞게 살 자율적 권리를 지닌다[11]. 즉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은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의식과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에 기초를 둔 수직적 공동체의식이다[16].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집단적 성향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의식이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다문화인식 간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까지 보인 것은 첫째, 대상자의 성향이 수직적이기 보다 수평적 특성이 강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에서의 형식적 다문화교육과 함께 미디어나 외국여행,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다문화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최근 1년간 다문화 경험율이 57.2%로 나타난 본 대상자들의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가 대학생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Suh[29]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성숙도도 집단적 문화성향과 다문화인식 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자체적으로도 다문화인식에 직·간접효과를 보였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의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변인에 대해 긴밀한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특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를 포함하는 용어이다[16]. 안정된 사회성을 지닌 자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의식이 발달한다[32]. 즉 사회성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인 사회성과 대인관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방식이라고 할 때 간호대학생들 간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을 보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학년에서부터 여러 형식의 다문화 경험을 쌓는 동시에 사회성숙도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관련프로그램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상관변수들로 나타난 개인-집단적 문화성향, 사회적 성숙, 공동체의식의 연구변수들을 선택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의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두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의 문화성향과 다문화인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내·외적 요인인 변인들과 역동적 인간관계, 학생의 성격 유형 등 여러 요인을 모두 다룰 수 없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성에 제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에게 추가적인 관련 변수들을 발굴하고 포함 시켜 모형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체의식 개선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분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전반적 적합지수에 잘 부합되는 모형으로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집단적 문화성향, 사회성숙도 및 공동체의식 모두 다문화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9.2%이었다. 개인적 문화성향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직접적 효과를 보였고, 집단적 문화성향은 완전매개변수인 사회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의해 선행적 관련이 있음이 규명되어 집단적 성향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매개하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및 사회적 변수들을 탐색하는 추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성향을 수직적, 수평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수립 시 공동체의식과 사회성숙도를 우선할 필요가 있  
다.

## REFERENCES

- [1] S. Y. Yang, H. N. Lim & J. H. Lee.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183-193. DOI: 10.5977/jkasne.2013.19.2.183
- [2] S. Y. Pak. (2016).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45-355. DOI : 10.14400/JDC.2016.14.12.345
- [3] I. Y. Yoo & J. A. Lee. (2014). Cultural Disposition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al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1(6), 925-931. DOI : 10.21086/ksles.2014.12.21.6.925
- [4] H. K. Jun. (201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 for Subjec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5] H. C. Triandis. (1995). *New Directions In Social Psychology: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Press.
- [6] Y. K. Noh.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Inventory For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24(2), 297-337. UCI : 410-ECN-0102-2012-180-003157993
- [7] K. S. Kim & B. M. Kim. (2017). Convergent Influence of Ego-Resilience, Psycho-Social Maturity on Stress Coping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375-383. DOI : 10.14400/JDC.2017.15.3.375
- [8]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http://www.riss.kr/link?id=A76516760>
- [9] D. W. McMillan & D. M. Chavis. (1986). Senc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DOI :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10] S. H. Hong.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50, 213-241. <http://www.riss.kr/link?id=A82731289>
- [11] D. A. Kim. (2015). Effects of Sports Education Department College Students' Cultural Orientation upon Conforming Behavior and Community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4(1), 81-90. <http://www.riss.kr/link?id=A100398264>
- [12] J. D. Kim & K. H. Mo.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Culture Study*, 17(3), 193-226. DOI : 10.24159/joec.2011.17.3.193
- [13] J. H. Wi. (2013).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the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uwon.
- [14] H. J. Kim & H. Y. Hong. (2018).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dolesc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31-43. DOI : 10.5392/JKCA.2018.18.01.031
- [15] G. C. Lee, Y. S. Park, H. K. Lee & K. J. Lee. (2015).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2), 337-346. DOI : 10.14400/JDC.2015.13.12.337
- [16] Y. O. Kim. (2006).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among Interdependence of Significant Others, Cultural Tendency, Interpersonal Trust and Community Spirit of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Dongduk University. Seoul.
- [17] G. S. Kim. (2007). *Analysi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 Hannarae Publishing.
- [18] T. M. Singelis, H. C. Triandis, D. P. S. Bhawuk, & M. J. Gelfand.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DOI : 10.1177/106939719502900302
- [19] G. B. Kim. (1996). *Mor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group-outgroup distinction : Cross-cultural analysi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0] B. Y. Suh & S. M. Whang. (1993). The Study On Development of Psycho-Social Maturity through the College Experiences. *Student Review*, 28(1), 1-31.
- [21] M. R. Park & H. G. Kim. (2004).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ity. *The Journal of Community Education and Counseling*, 3(1), 21-39. <http://www.riss.kr/link?id=A75239435>
- [22] J. K. Chung. (1999). Korean Sense of Commun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5(2), 19-30. <http://www.riss.kr/link?id=A100628784>
- [23] Y. K. Park. (2008).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Preservice Teachers' Changes I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Centered On The Cultural Diversit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3), 147-183. <http://www.riss.kr/link?id=A75552225>
- [24] M. H. Lim. (2012). *A Stud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Master's thesis, Cheonju University, Cheonbuk.
- [25] K. S. Kim. (2010). *AMOS 18.0,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publishing.
- [26] G. H. Cho. (1996). Culture and Person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04-139. <http://www.riss.kr/link?id=A100627912>
- [27] H. J. Son.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off of between the Psychosocial Maturit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8] M. J. Suh.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9] J. A. Kim & J. Choi. (2016). Correl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4), 67-88.  
DOI : 10.14328/mes.2016.12.31.67
- [30] E. M. Lee & S. H. Kim. (2017). Influence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4), 459-468.  
DOI : 10.5762/KAIS.2017.18.4.459
- [31] S. Jang, S. Y. Kim & E. Kobayashi. (2014).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2), 1-24.  
DOI : 10.21193/kjspp.2014.28.2.001
- [32] H. Nam, M. Lee, E. Bae, S. Kim & J. Baik.(2014), Research int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elative to a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tic value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8(2), 227-255. <http://www.riss.kr/link?id=A100386096>

최 동 원(Choi, Dong Won)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적십  
자 간호대학 조교수, 수원여자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  
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dionia@iccu.ac.kr